

미륵사지 사리장엄구 '공개'

국립문화재연구원, 7월 26일까지 '사리장엄 특별전'

익산 미륵사지 석탑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 일체가 불교계의 이운법회와 함께 일반에 공개된다.



익산 미륵사지석탑에서 출토된 금제 사리장엄구.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는 전북도·익산시의 공동으로 6월 27일~7월 26일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 특별전'을 개최한다.

익산 미륵사지유물전시관 특별전시실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1월 14일 미륵사지석탑 해체 조사 중 1층 심주석 중간에서 수습된 금제사리호와 금제사리봉안기를 비롯해 내호와 연주, 유리구슬류 등 사리장엄구가 보존처리 등을 마치고 공개된다. 직물류, 도자(갈),

사리병편 등 일부 유물은 보존상태가 좋지 않아 제외됐다.

특별전 개막식은 6월 27일 오전 10시 익산 미륵사지유물전시관 앞에서 김제 금산사 등 익산지역 불교

계의 이운법회와 사리친견 기념법회를 시작으로 개최된다.

기념법회에는 영산작법(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18호)과 생전예수재, 사리친견, 탑돌이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익산 미륵사지석탑에서 출토된 '금제 사리봉안기'는 미륵사의 창건 배경과 시주자가 명문으로 기록돼 학계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킨 유물"이라며 "이번 특별전은 다양한 백제시대 사리공양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 넘어 사회운동으로...

생명나눔 광주본부 '생명나눔 콘서트'

생명나눔운동의 새로운 10년을 알차게 준비하고 실천하기 위해 후원 회원들이 하나된 마음을 모으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는 6월 17일 광주 삼무지구 5·18기념문화관 대극장에서 '주권기의 생명나눔 콘서트' 음악회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사장 일민 스님을 비롯해 후원 회원과 환우어린이, 신원단체 등 7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생명나눔운동이 불교 신원단체로서의 활동을 넘어 범시민적이고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열렸다.

행사에서 가수 주권기와 에

플드플루트앙상블의 플루트 연주, 시립국극단원 윤재형의 판소리, 소리노리 대표 김용철의 축하 공연이 무대에 올려져 관객들의 큰 호응이 있었다.

광주생명나눔 주권기 홍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민 스님과 광주전남지역본부장 현지 스님의 생명나눔 이야기가 진행돼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어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 치료비 전달식도 열렸다.

한편,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이날 행사의 수익금과 생명나눔 캠페인 전개를 통해 모금된 기금을 소아암·백혈병 어린이들의 치료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천연 염색손수건

직접 만들어 봐~

고창복지관 놀토 프로그램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무공)은 6월 13일 쉬는 토요일(놀토)을 맞아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천연 염색 체험장 자연애(애)에서 '천연 비누 만들기'와 '천연손수건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이날 천연 염색체험 김영남 원장의 지도로 진행된 천연염색체험은 청소년들이 직접 고른 천연 향으로 장미모양 등 다양한 틀에 비누를 만들어보기도 하고 천연재료로 만든 염색물에 하얀 손수건을 담가 손수건 물들이기 체험을 했다.

또 자연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했다.

고창사회복지관은 다음 놀토인 27일에는 일실 치즈마을에서 자연과 함께 경운기 타기, 치즈 만들기 체험, 초지 썰매타기 등의 농촌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따고 덕고 비비고 말리고

금산사·선운사 '차 만들기' 템플스테이



김제 금산사 '우리 차 만들기' 템플스테이에서 참가자들이 차를 두고 있다.

차 만들기 철을 맞아 도내 각 사찰에서 차만들기 템플스테이가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과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은 6월 18일부터 매 주말 각각 2박3일 일정으로 '우리차 만들기' 템플스테이를 진행중이다.

금산사는 서래선원 주변의 자생 녹차밭에서 녹차를 따고 뜨거운 불에 아홉번을 튀기고 비비고 말리는 인고의 과정을 거쳐 향기로운 차의 참맛을 느끼는 수행의 한 단면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즈넉한 산사의 맑은 공기 아래 냇물소리와 함께 직접 만든 차를 마시며 스님과의 대화, 명상체험 프로그램은 티백차에 익숙한 일반인들에게 특별한 추억으로 남겨졌다.

한국의 문화를 접할수 있는 기회라 특별히 참가했다는 스위스 국적의 탐씨는 "차나무도 처음 보았고 산사에서 다도체험과 발우공양은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며 차를 튀기고 비비는 제다 과정을 함께 하며 카메라에 담기 바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안도현 시인 등과 '글쓰기' 대화

실상사 '지리산 청소년 글쓰기 한마당' 개최

자연과 인간의 평화로운 관계 속에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이끌어 가고 있는 남원 실상사주지 재원과 한생명은 6월 12일 실상사에서 지리산 인근 70여 초중교생이 참가한 가운데 '지리산 청소년 글쓰기 한마당'을 개최했다.

올해 13회째 맞는 이번 대화는 운봉초등학교 학생들의 사물놀이, 산내초교의 오카리나 연주, 봉곡초등학교 학생들의 팝송부르기 등 식전공연으로 시작했다.

글쓰기 한마당은 전북작가회의에서 심사를 맡아 주먹, 맨발, 자전거, 강, 씨앗, 밥상, 우리형, 흙 등의 글감으로 500여 편 작품이 출품됐다. 이와 함께 이미 4월부터 제출된 76종의 도서에 대한 독후감과 함께 원왕봉, 반야봉, 노고단, 정령치 등 지리산과 관련된 지명이름으로 160여

작품을 선정해 시상했다.

글쓰기를 마친 학생들은 안도현 시인, 김용택 시인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고 넉넉기, 간썬넉기 등 전래 놀이를 즐기는 시간도 가졌다. 또 지리산 반달곰 사진과 곤충표본감상, 칼라스톤 모자이크 만들기, 야생동물 발자국 찍기, 연꽃등 만들기, 108배 체험, 자연해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체험 마당을 즐겼다.

이번 지리산 글쓰기 한마당은 지리산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농촌 청소년들이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문화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지역의 각 학교가 서로 소통하고 어울리는 속에서 지역 공동체의 모습을 되살리며, 청소년들이 자신을 마음껏 표현하며 글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6월 12일 실상사에서 열린 '지리산 청소년 글쓰기 한마당'에 참여한 학생들.

현대불교 현불샵 생활도자기 특별기획전

전화주문 ☎ 02)2004-8215~6

도자기의 본고장 경기도 이천에서 도자기의 생활화를 목표로 순수자연원료로 제작된 도자명품 생활자기입니다. 우리 도자기의 품질로 완성된 생활 명품입니다. 도자기 접시와 찻잔(머그잔, 커피잔), 다완, 퇴수기, 화병, 화로 등 다양하고 품격 높은 생활자기는 불자들의 생활을 더욱 향기롭게 할 것입니다.

- 퇴수기는 흔히 물버림 사발이라고도 하며, 버리개라고도 합니다. 다완과 잔을 대운 물을 버리거나 다완을 얹어 찌꺼기를 버리는 그릇입니다. 입구가 넓으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3단도라지꽃합접시 대20,000원/중10,000원/소5,000원	 둥근3꽃접시3종세트 판매가 35,000원	 4발접시 판매가 45,000원	 검정사각원꽃접시 판매가 45,000원
 청자수반퇴수기 판매가 50,000원	 분청퇴수기 판매가 80,000원	 이도담범퇴수기 판매가 40,000원	 분청통그리화병 대 40,000원 / 소 20,000원
 분청하얀꽃화병 대 60,000원 / 소 40,000원	 벗씨화병 대 100,000원 / 소 80,000원	 보라꽃커피잔 판매가 18,000원	 카키색흰물고기찻잔 판매가 8,000원
 카키색도라지꽃찻잔 판매가 16,000원	 백자도라지꽃찻잔 판매가 16,000원	 하트모양커피잔 판매가 15,000원	 연꽃백자커피잔 판매가 18,000원

현대불교@장리
www.HyunbulShop.com
이외 다양한 상품은 협불샵(www.hyunbulshop.com)에서 만나보세요.

우리지역 부녀나눔자

재소자들의 어머니 내원암 자인 스님

교도소 교화 20년... 가정 편해야 나라 편해져

기독교 복음화 비율이 31%가 넘는 군산시. 인구대비 교회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는 군산시 나운동 중심에 작은 포교당을 내고 포교에 열성을 다하고 있는 내원암 자인 스님(사진)을 찾았다.



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하고 나라가 행복해진다라는 신념을 실천하고 있다.

요즘 들어 건강에 관심이 높아진 시민들이 자주 찾는 월명산의 나운동쪽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내원암은 항상 문이 열려있는 '열린 도량'이다. 누구나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러 쉬어가며 물 한잔 마시고 갈수 있는 편안한 도량 내원암. 내원암은 1986년 나운동이 개발되기 전 허허벌판인 나운동이 군산의 중심이 될 것이라 확신으로 불사를 시작한 자인 스님의 안목이 있어 가능했다.

처음 내원암을 창건할 당시의 초심처럼 포교에 원력을 세우고 지역의 신도회, 청년회 등 지역 신도, 포교단체들의 활동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일찍이 사찰의 모든 중무를 전산화해서 빠른 일 처리와 함께 신도를 집안의 제사날까지 잊지 않고 챙길 정도로 신도들 가정의 모든 일상을 손바닥 보듯 꿰뚫어 보는 스님은 가정

자인 스님 하면 교도소 교정교화 활동을 빼놓을 수 없다. 군산에 자리를 잡으면서 군산교도소를 출입하기 시작한 것이 벌써 20년을 훌쩍 넘겼다. 스님은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매월 2번씩 한번도 빼놓지 않고 교도소 법회를 진행했다.

처음 군산교도소에 법당도 없이 복도 한 칸에서 법회를 보기 시작한 것이 지금은 80명이 넘는 여법한 법당으로 탄생한 것도 자인 스님의 보이지 않는 노력의 결실이다.

교도소법회를 위해 연간 8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투자한다는 스

님은 초파일이면 재소자들의 수계법회를 통해 불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군산교도소 곳곳이 연등으로 장엄될 수 있게 음으로 양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연등 장엄만 해도 자인 스님이 일일이 교도소에 연등재료를 날여주고 불자재소자들을 돌봐한 덕분이다.

스님은 이러한 공로로 1991년에는 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1999년도에는 교정대상 자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재소자들이 출소한 후 한순간의 실수에서 벗어나 참회의 삶을 살아가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며 가끔 '어머니'하며 안부 전화를 해올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

스님은 평소에도 불자 재소자와의 자매결연, 출소예정자의 사회체합과 불교용품 지원등 재소자들의 교정교화에 누구보다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

타종교 교세가 하늘을 찌르고 자고나면 교회의 입지가 높아만 가는 군산에서 사회의 길잡이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자인 스님은 우리 지역의 소중한 원력보살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